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63호 【루계 제25872호】 주체106(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 진행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2017년 사업정형총화를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기에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할수 있으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락원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련석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박영식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로두철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 리만건동지,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지방당, 정권기관, 주요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련석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2017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이 분석총화되였다.

보고를 박봉주동지가 하였다.

박봉주동지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2017년 사업정형총화를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결사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어렵고 바쁘신 속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판전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경제부문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의 생산적위훈을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고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서두수발전소, 금강군,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 룡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을 비롯하여 올해 전투목표수행에 앞장선 전형단위들에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천만군민의 가슴을 혁명열, 투쟁열,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 경쟁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적대응전략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박봉주동지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당이 제시한 올해 전투목표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려 자랑찬 성과들을 마련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문명이 융축된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표준군, 본보기군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도전속에서도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비상한 창조본때로 당이 제시한 자동차와 뜨락또르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922건설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세포지구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자력갱생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평양가방공장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갖가지 질좋은 가방들이 생산되였으며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이불생산공정이 새로 꾸려지고 류원신발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이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과 화장품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개건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방직공업부문에서 성능높은 직기를 개발하여 천생산능력을 높이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그물천생산공정을 꾸려 가방, 신발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용도와 색갈의 그물천을 생산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파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파수정책을 받들고 파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으며 특히 파일군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정보당 파일생산을 2.5배, 사파생산은 5.8배로 늘인데 대하여 말하였다.

과학기술부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힘있게 추동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을 가장 충직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당에 기쁨을 드린데 대하여 말하였다.

화학공업성과 건설건재공업성,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일군들, 과학자, 건설자들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이불생산공정이 새로 꾸려지고 류원신발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이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과 화장품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개건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박봉주동지는 올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전반적경제부문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인 전력문제해결에서 군민련합작전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으며 전력생산토대가 튼튼히 다져졌다고 말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질소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를 기본적으로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고 말하였다.

박봉주동지는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가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는 곧 과학이며 승리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더욱 튼튼히 세워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나라의 국방공업,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려 다음해 전투목표를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하며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박봉주동지는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이 오늘의 대고조진군은 날강도 미제와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이며 대고조진군의 승패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의 혁명적대응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헌신적인 투쟁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인민경제 각 부문별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들에서는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였으며 나타난 결함들이 총화되였다.

토론자들은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전투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나갈 때에만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깐지게 해나가며 혁신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전투적으로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들을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2018년을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여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불타는 일념밑에 압록강체육단 산하단위 리명옥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 공원을 훌륭히 꾸리는데 충정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많은 기재와 물자들을 기증하였다.

철도성 철도설계연구원 로동자 정경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안고 수십종의 자재와 설비,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였으며 평양시제2인민병원 의사 리춘영도 인류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전당을 수없이 찾아 순결한 공민적 량심을 바치였다.

삼지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김광혁은 혁명의 성지건설에 헌신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나라의 대동력기지를 일떠세우는 투쟁에 적은 힘이나마 기여할 마음안고 류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통역원 강인수는 단천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전투원들에게 지성을 다하였다.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의사 리용우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해 오랜 기간 현장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락랑구역 승리1동 19인민반 조윤희는 군사복무의 나날을 값높이 빛내인 특류영예군인과 한가정을 이루어 사회주의대가정에 미덕의 향기를 더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적극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친근한 김정은동지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 42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과 라오스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에게 따뜻한 축하와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해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단결을 다시한번 확인하는바입니다.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당신의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 냥 워 라 찓

2017년 12월 25일 비엔티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대표부성원들이 28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등의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체스꼬단체 인터네트에 게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그이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가 2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홈페지는 백두산녀장군의 사진문헌과 영상미술작품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떨쳐가리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해가고있는 우리 조국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만든 창조물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얼마든지 우리의것을 찾아볼수 있다.

녀성들이 리용하는 고급화장품도 우리의것이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선 우리 아이들이 멘 책가방도 《소나무》상표를 단 우리의 책가방, 우리 글을 곱게 새겨가는 학습장도 우리의 《민들레》학습장이다.

푸른 하늘을 훨훨 날으는 경비행기들도 우리 손으로 만든것이고 땅속을 누비며 달리는 지하전동차도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것이다.

그 어느 일터를 찾아가보아도 모두의 얼굴마다에 신심이 어려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이 땅에 늘어나는 재부들,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는 거창한 기념비적건축물들도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창조한것이여서 기쁨은 형언할수 없이 큰것이며 기세는 충천한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고귀한 재부들이 광범히, 련속적으로, 최대속도로 창조되는 눈부신 이 세월, 언제나 새로운 기쁨에 흥성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거창한 격변의 서사시가 아로새겨지는 이 시대의 긍지가 어디서 샘솟는가를 가슴벅차게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자강력제일주의!

이것이다. 여기에 희세의 천출위인들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승만을 떨치고있는 조선혁명의 영광넘친 력사가 있고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도 체험해보지 못한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전진해온 력사적화폭들이 빛발쳐온다.

사람들은 생생히 기억하고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새로 만든 경비행기를 몸소 타시고 시험비행을 하신 력사의 그날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공을 날으는 경비행기들을 바라보시며 여러 기종의 민간용경비행기들도 마음먹은대로 만들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경비행기에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타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좋아할것이며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경비행기에 오르시였다.

시험비행을 마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경비행기를 타보았는데 성능이 대단히 높다고, 조종하기 편리하고 발동기소리가 아주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일군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속에 마련된 경비행기가 아니였던가. 그런데 그 모든 성과들을 로동계급에게 돌려주시니 어찌 가슴뜨겁지 않을수 있으랴.

그이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제힘으로 경비행기를 만든 자강력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는 때는 자강력의 흐뭇한 열매를 보실 때이다.

지난해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전시장에 출품된 모든 제품들은 자강력이 제일이며 자력자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만든 기계제품들은 하나와 같이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마음에 드는것은 여러가지 기계제품들을 다른 나라의 견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제작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천만군민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가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의 조국이 얼마나 더욱더 젊어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얼마나 자기 힘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는것인가.

귀를 기울이면 금시라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의 동음이 들려올것만 같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찾으시여 줄비하게 서있는 수백대의 새형의 80hp뜨락또르들을 보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몸소 뜨락또르에 오르시여 운전을 하시면서 《천리마－804》호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 새형의 뜨락또르는 단순한 룬전기재가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봉쇄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끊고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이라고, 공장로동계급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적들에게 호된 강타를 안겼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은 또 어떠한가. 볼수록 힘이 난다.

얼마전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드넓은 주차장을 꽉 메우고 줄비하게 서있는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일어나 만들어낸 주체조선의 자동차들이라고 하시면서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몸소 자동차에 오르시여 운전을 하시면서 5t급화물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우러르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였다.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본때가 낳은 고귀한 창조물인 우리의 뜨락또르들과 화물자동차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에서 기운차게 내달리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그 어디에서나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그것은 멸망에로 줄달음치는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시간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으며 우리의 자강력은 엄혹한 시련속에서 천백배로 강해지고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쿵쿵 울려준다.

자강력제일주의! 이는 모진 시련을 뚫고 백승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전력사를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힘이다.

자강력, 이것만 있으면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강의한 정신력, 자력자강의 정신을 체질화한 천만군민이 있기에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천만군민이여, 자력갱생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내달리자!

본사기자 김철혁

새것의 창조자들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지 못하고 남의 뒤를 따라가는 식으로 하여서는 언제 가도 남을 앞서나갈수 없으며 그런 사람들을 자강력의 강자들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 힘과 지혜로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기발한 착상과 혁신적인 발명도 할수 있고 특색있는 과학기술분야도 개척할수 있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직장에서 직장으로, 기대에서 기대에로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직장의 압축기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기업소에서 만든 새 압축기라고 말씀올리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여러가지 압축기가 진렬되여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은 한 압축기를 가리켜드리며 운영자들이 좋아한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신채 압축기들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무엇때문에 그러실가?…)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하였다. 압축기와 관련한 직관도를 설명해드리였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시였다.

얼마후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리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압축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는데 압축기를 많이 생산하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탄광, 광산들을 비롯하여 굴을 뚫는데서는 압축기를 많이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 기업소에서 만드는 압축기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것을 모방하여 만든것들이라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것을 만들 생각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압축기도 현대적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압축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설비의 하나이기때문에 잘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에서 룡성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이 심장으로 새긴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력갱생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남을 앞서나가는 비상한 창조정신이라는것이였다.

그후 룡성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은 설계도 제작도 다 자체의 힘으로 해낼것을 결심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우리의 실정에 맞으며 다른 나라의것보다 우월한 새형의 압축기들을 만들어내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그 나날에 룡성의 로동계급은 무엇이나 다 만들어내는 새것의 창조자들로, 자강력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본사기자 채히성

당세포는 우리 당을 떠받드는 억척불변의 초석

오늘 우리 당은 줄기차고 억센 향도의 힘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민족사적인 대승리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무진막강한 국력과 비약적인 발전잠재력이 만천하에 과시되고있으며 인민의 리상과 꿈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하기에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은 더욱 백배해지고있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격동적인 시기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는 전당의 당세포를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존엄과 권위, 위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당세포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유기적결합체이며 여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 세포이다. 세포가 튼튼해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당세포가 건전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 기본고리로 된다.

당세포는 당중앙을 떠받들고있는 초석이다.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길수 있은것은 당세포들의 전투적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결사옹위한 락원의 당세포와 반사회주의역풍이 휘몰아치던 시기 령도자께 충정을 맹세한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를 비롯하여 준엄한 년대들마다 당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받들어온 수천수만의 당세포들의 활동은 우리 당력사에 금문자로 빛나고있다.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이 조선로동당력사가 확증한 고귀한 진리이다.

당세포들은 비록 크지 않아도 그 전투력과 위력에 의하여 당의 운명이 좌우되게 된다. 그러므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잠시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오늘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당대렬에 많이 들어오는 조건에서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때문에 우리 당은 당건설에서 당세포강화를 일관하게 주장하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백전불굴의 혁명적당,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지름길은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있다.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당의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단결을 이룩하지 못한 당은 령도적정치조직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구락부나 같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기본단위이다. 당원들은 누구나 당세포에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며 당세포를 통하여 당의 숨결을 받아안게 된다. 때문에 모든 당세포들이 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투철한 사회주의신념,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열혈투사로 준비시킬 때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이 더욱 굳건해질수 있다.

오늘 우리의 당세포들은 전체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당원들에게 수령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심어주고 자기 령도자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억척같이 간직하도록 이끌어주고있는것이 당세포들이다. 당세포들의 활동은 우리 당안에 수령결사옹위를 근본핵으로, 제일생명으로 하는 혁명적인 당생활기풍,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강철같은 당생활기풍, 모든것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풀어나가는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꽉 차넘치게 하고 전당을 하나의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만드는데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당세포들이 자기의 전투적역할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기에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백승의 위력을 떨치고있는것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공고화된 우리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비할바없이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저절로 유지되는것이 아니다. 모든 당세포들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충성의 세포가 될 때 전당이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끊임없이 강화되게 될것이다.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근본열쇠이다.

우리 당은 자기의 기록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다. 세월의 강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인민뿐이였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한 여기에 우리 당이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올수 있은 비결이 있다.

우리 혁명의 최강의 무기인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성과여부는 당세포의 역할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상과 감정, 심리와 동향, 생활조건과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있는것도 당세포이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의 목소리를 직접 해설선전하는것도 당세포이다. 광범한 대중은 당세포를 통하여 당의 모습을 보고 당의 숨결을 느끼며 당과 혈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 우리의 당세포들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혁명적당풍으로 확립해나가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활동에 적극 구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 우리 당이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정히 받드는 인민을 위하여 모든 당원들이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참답게 이끌어주고있는것이 당세포들이다. 당세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갈 불변의 투쟁신조를 지닌 로동당원들이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주체의 당기를 우러르며 멸사복무의 한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이다.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기 위해 남모르는 진정을 바쳐가는 일군도,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를 풀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충복들도,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대중을 선도해나가는 전위투사들도 모두 로동당원들이다. 당세포가 어머니당의 본성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당원들을 이끌기에 우리 조국땅 그 어디서나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리고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는 반석같이 다져지고있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주체의 인민관을 활동원칙으로 삼고있는 당세포들이 있는 한 당과 인민이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진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은 영원하다.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의 위력은 그 전투력과 령도력에서 나타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때 높은 전투력과 령도력을 지닌 당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당의 령도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안에 수많은 당조직들이 있지만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것은 당세포들이다. 당세포는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 지시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해설침투하고 집체적토의를 통하여 옳은 집행대책과 방도를 세우며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관철해나간다. 그러므로 당세포강화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당세포들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게 되고 모든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가 되어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백승에로 향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높아질수 있다.

오늘 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전형단위들의 투쟁은 당세포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록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증산의 동음, 혁신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려가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북창과 득장지구의 탄광들, 어제날 뒤떨어졌던 산골군을 인민의 금강으로 전변시킨 강원도 금강군 등 시대의 전렬에서 내달리고있는 단위들에는 례외없이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맹활동을 벌리는 당세포들이 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당세포들이야말로 우리 당의 결심을 실천으로 빛내이는 결사관철의 대오이고 당을 받드는 초석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당세포들이 전형단위의 당세포들처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관철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구상과 목표를 빛나는 현실로 펼쳐나간다면 조선로동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은 천백배로 강화되게 될것이다.

김성남

전당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

하부지도에서 무엇을 중시하였는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하부지도에서 일군들이 당세포에 직접 들어가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면서 세포비서들을 도와주고 배워줄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

당의 기층조직이며 기본전투단위인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세포를 중시하고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는 이 측면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마음속에 들어가자

전당에 세포를 중시하고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일군들은 누구나 당세포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생활력을 발휘하는 측면에서는 단위마다 차이가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당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데 있다.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이 그것을 체험한 계기가 있다.

지난 10월 박철호당위원장은 득장청년탄광 1갱 채탄3중대의 생산실적이 처지고있는 문제를 놓고 담당지도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담당지도원은 채탄장조건이 나쁘기때문에 월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당책임일군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막장에 내려가 당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당원들은 통발나무와 소공구도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당원들이 주저할것이 무엇이겠는가, 마음먹고 달라붙어 월계획을 수행해내겠다고 결의해나서는것이였다. 이 일을 두고 당책임일군은 생각이 많았다. 담당지도원들이 하부지도사업계획에 따라 매달 당세포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당원대중의 마음속깊이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당책임일군이 찾은 교훈은 컸다.

그는 실천적모범으로 담당지도원들을 이끌었다. 담당지도원과 함께 득장청년탄광 1갱 채탄3중대에 내려간 당책임일군은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놓고 당원들과 담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채탄공 윤동무가 앓는다는것을 알고는 약재와 식료품을 가지고 담당지도원과 함께 그의 집을 찾았다. 이마도 짚어보고 가져온 약재도 안겨주는 당책임일군의 뜨거운 인정미에 끌린 그는 몸이 불편하여 맡은 일에 투신할 생각을 못했었다고 자기 속생각까지 허놓았다. 당책임일군의 사업방법을 보면서 담당지도원은 당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때 실속있는 지도가 될 수 있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였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갔다.

중대가 10월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면 결정적으로 동발나무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포착한 그는 당세포당원들과 함께 동발나무도 끌며 앞장에서 땀을 흘리였다. 설참에는 노래도 불러주면서 그들과 섬쓸렸다. 오랜 당원들이 자기들의 속생각을 허놓기 시작하였다. 갱작업에서 실적을 올리자면 소공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곧 득장탄광 기계공장으로 갔다. 그가 온 사연을 알게 된 그곳 로동자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소공구를 생산하여 중대에 보내주었다. 그후부터 담당지도원은 당원들과 채탄공들속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들과 어울려 하루종일 땀흘려 일하다가도 교대가 끝나면 당세포당원들의 집을 찾았다.

한 채탄공이 살림집을 보수하지 못해 안타까와하고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재를 해결해주어 불편없이 생활하게 하였다. 어느날엔 자기 집에서 성의껏 마련한 식료품을 가지고 여러 가정들을 찾아가 가족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가까이 앉아야 정이 통한다고 이 과정에 담당지도원과 당세포당원들사이는 혈육처럼 가까와졌다. 그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은 일에서 성수를 내지 못하고있던 여러명의 채탄공들이 분발해나섰다. 그렇게 되니 생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뛰여올랐다. 담당지도원의 방조속에 1갱 채탄3중대는 하기 힘들다고 하던 10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였다.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단 결과였다.

한가정의 어머니가 되게 하자

탄세포가 당과 대중의 혈맥을 이어주는 기본단위가 되자면 당세포위원장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위원회는 전당에 세포를 중시하고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이 점을 특별히 중시하였다.

지난해 2월 어느날 득장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에 나갔던 리철진 당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돌격대원이 가정문제때문에 사람들속에서 이러저러한 말을 듣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문제로 된것은 당세포위원장이 그 사연을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를 교양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러니 돌격대원의 감정이 좋을리 만무하였다.

어느날 당세포위원장과 자리를 같이한 당일군은 돌격대원이 그렇게 된데는 동무의 잘못도 있다고,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당세포위원장들이라고 일깨워주었다. 그런 후 당세포위원장과 함께 그 돌격대원의 가정을 찾았다.

잘못을 저지른 자기를 책망할 대신 오히려 심중히 알아보지 않고 사람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당세포위원장의 처사를 놓고 사회하는 당일군앞에서 돌격대원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것을 목격하면서 당세포위원장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진정을 기울일 때 그들을 우리 당과 혈연의 정으로 굳건히 이어놓을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후 당세포위원장들속에서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사업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한가정의 어머니처럼 되기 위해 애쓰는 당세포위원장들이 늘어나고 당세포들이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력이 강한 쇠소리나는 충정의 대오로 굳건해지는 속에 지난 3년간 20여개의 당세포가 충성의 세포대렬에 들어섰다.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속에 련합기업소는 올해 그처럼 불리한 조건에서도 년간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당세포들이 당을 억세게 받드는 초석,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자면 당일군들이 당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당세포위원장들이 한가정의 어머니가 되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일군들이 하부지도에서 찾은 교훈이다.

본사기자

당초급일군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 때

재령군 김제원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김제원리당위원회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중시하고있는것은 무엇인가. 당초급일군들이 선봉적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가 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 당세포가 강화되고 우리 혁명은 그만큼 빨리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

농장에서 올해에 새로운 영농방법을 도입하던 때의 일이다.

그것을 농장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있었는데 잘 진척되지 않았다. 논벼포기마다 비료를 깊이 묻어주는 영농작업이였는데 많은 품이 들었다.

그와 관련하여 일부 농장원들의 의견이 제기되였다. 이렇게 속도가 뜬데 과연 영농공정을 제기일에 보장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농장원들의 의욕이 높지 못하니 농장관리일군들도 손맥이 풀렸다. 하지만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자면 반드시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홍성룡리당위원장의 생각은 깊었다.

(어떻게 하면 영농공정을 앞당길수 있을가?)

이렇게 생각하던 리당일군은 그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제6작업반에 나갔다.

마침 그곳 포전에서는 논벼의 포기마다 비료를 묻어주는 작업이 한창이였다. 그곳 당세포위원장의 일본새가 대번에 마음에 들었다. 그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하면서 작업반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었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야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그는 알기 쉽게 원리적으로 해설해주고있었다. 그러면서 품이 들어도 비료를 깊이 묻어주자고 호소하며 앞장에 서는것이였다. 그날 작업반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것을 보면서 리당일군은 확신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을 발동하자. 그들을 선봉에 세울 때 못해낼 일이 없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위원장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세포위원장과 작업반장들, 리안의 관리일군들이 참가하는 여러 총화와 모임들을 제6작업반 포전머리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그들이 앞서나가고있는 제6작업반의 현실을 직접 보면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뼈속깊이 새기고 헌신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세포위원장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당세포위원장들에게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다시금 심어주었다. 그들이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주인된 자각을 가져야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도 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우쳐주도록 하였다. 특히 당세포위원장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면서 당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오늘날 사회주의협동벌은 우리 당,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총포성없는 격전장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이 높아지자 대중의 열의도 높아졌다. 이렇게 되니 농사일이 잘되여나갔다. 마치 치차가 맞물려 돌듯이 영농공정들이 착착 맞아 돌아갔다. 비료주기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영농공정별로 진행되는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에서도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하여 제5, 6, 7작업반들에서 불리한 농사조건을 이겨내고 알곡생산에서 좋은 결실을 이룩할수 있었다. 농업과학기술보급실과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걸음을 내짚었다.

이곳 리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을 통해 당세포위원장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더욱더 확증하게 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비서들의 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것입니다. 》

자강도정보통신국 시외직장 당세포위원장 리경일동무는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그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줄 아는 정치사업의 능수이다.

이 단위에는 총명하기로 소문난 김동무가 있었다.

직장에서 걸린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풀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창의고안명수, 성격도 활달하여 늘 사람들과 잘 휩쓸리던 그가 어느때부터인지 우울해지면서 사람들과 말도 잘하지 않았다. 그를 만나 원일인가고 물어보았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였다.

당세포위원장은 김동무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을 만나보았다.

그 과정에 그가 가정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후 당세포위원장은 김동무의 집을 자주 찾아가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그가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으로 탄원할 의향을 표시했을 때에는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런 실례는 많다.

한 초급일군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자기 종업원을 책임지기 힘들다고 할 때 그 종업원의 심리에 맞는 방법론을 터득하도록 이끌어준 사실, 한 종업원이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가 걸려 애를 먹고있을 때 당원들에게 호소하여 그의 집을 번듯하게 꾸려주어 그가 집단의 고마움을 알고 일에 전념하도록 한 사실…

이처럼 리경일동무는 사람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교양방법을 옳게 적용하여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최 영 길

믿음에는 충정이 따른다

‖ 곡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

당과 대중의 혈맥을 이어주는 기본단위인 당세포가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군안의 모든 당세포들이 믿음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적극 떠밀어준 곡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주목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적믿음에는 충정이 따르지만 불신에는 배반이 따르기마련입니다. 》

군당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세포위원장들에게 우리 당의 숭고한 믿음의 철리를 정대로 조아박듯 심장에 깊이 새겨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늘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는 김도명군당위원장이 송림협동농장 제4작업반 농장원 박은녀동무의 뒤둴을 잘 알게 된것이 계기로 되였다.

농장원의 아버지는 지난 시기 과오를 범하였었다. 하지만 차별없이 풀어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교마음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며 농장원은 당의 위업을 받드는 길에 한생 깨끗한 량심을 바쳐갈 굳은 각오를 가지였다. 그는 남보다 일에 갑절 뻐심을 들이였다. 작업반의 소를 자진하여 관리하는가 하면 분담된 논과 밭에 질좋은 거름을 정보당 30t씩 냈다. 하여 해마다 작업반의 알곡생산계획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불같은 실천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대렬에 들어서고싶은 간절한 소망의 분출이였고 심장의 고백이였다.

하지만 갓 사업을 시작한 그곳 당세포위원장은 그를 좋게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의 아버지문제 때문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그것을 스쳐지날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당세포위원장대렬에 새로 들어선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을 포함한 모든 당세포위원장들에게 우리 당의 믿음의 철학을 뼈속깊이 새겨줄 결심을 하였다.

리철현부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의 진지한 토의밑에 군당책임일군은 당세포위원장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였다.

실효는 컸다.

초급당조직들이 당세포들의 사업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특히 당세포위원장들이 군중은 우리 당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야 할 영원한 동행자이라는것,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믿음의 철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그리고 군중과의 사업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짚었다. 그 과정에 송림협동농장 제4작업반 박은녀동무도 지난 태양절을 맞으며 가슴속의 간절한 소망을 푸는 눈물겨운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또한 믿음, 그자체가 힘있는 교양이라는 관점에서 초급당조직들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뜨거운 믿음속에서 불사신으로 키워나가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는 한편 조직부 일군들을 비롯한 해당 일군들이 당세포사업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지난 8월의 하부지도사업총화때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부 단위들에서 군중과의 사업을 응당한 높이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편향이 제기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해당 단위 당일군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그들을 각성시키는데만 머무르지 않았다. 하부지도를 하는 일군들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깽철하게 총화하고 현지에 나가 초급당일군들과 함께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취하도록 하였다.

당세포들이 믿음이라는 위력한 무기를 틀어쥐고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떠밀어주는데서 군당책임일군은 앞채를 벴다.

지난해 5월 세멘트공장에 3대 혁명붉은기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을 때 이곳 김태선지배인과 당세포위원장 최남철동무가 뜨겁게 더듬은 추억이 있다.

높이 세운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의 나날에 군당책임일군이 현장을 자주 찾으며 제일 판심을 돌린것이 바로 대중의 정신력폭발을 위한 사업이였다. 안착되지 못하고 말썽을 부리는 일부 종업원들을 두고 공장일군들이 안타까와할 때마다 친혈육보다 더 뜨거운 정을 주고 믿음을 주면 안될 일이 없다고 힘을 주군 한 군당책임일군이였다.

한때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던 종업원들이 바로 그속에서 재생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고 쟁쟁한 혁신자로, 어엿한 초급일군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였던것이다.

세멘트공장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 기쁨을 드리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의 소행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제때에 일반화해나갔다.

군안의 당세포들에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기 위한 노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그에 따라 일터들에서 인간사랑과 믿음의 감동적인 화폭들이 수많이 펼쳐지고 총공격전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그 힘에 떠받들려 군에서는 올해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정치적믿음에는 충정이 따른다!

이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하도록 당세포들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준 이곳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따라배울만 하다.

본사기자 리 정 수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 여러곳 참관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체류의 나날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어있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사적관의 여러 호실들을 돌아보면서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적청년운동사상과 로선을 천명하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받들고 새 세대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의 전구마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치도록 하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와 역할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찾은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전승령도업적이 력력히 어려있는 최고사령부지휘처와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신 곳 등을 주의깊게 보았다.

그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천재적지략, 비범한 명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영웅조선의 승리전통을 마련해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과학기술전당이 세상에 둘도 없는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전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정책을 관철하는 지름길이 과학기술에 있으며 생산장성의 예비도 과학기술에 있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준비시켜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대회참가자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일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자료들과 전시물들을 보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야 말 멸적의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자위적국방력강화에 쌓아올리신 회세의 천출명장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응축되여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참관을 통하여 대회참가자들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혁명적무장력이 있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이 확고히 담보되고있음을 굳게 확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열자

남양탄광 7갱 3중3대혁명붉은기 차광수청년돌격대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남양탄광 7갱에는 지난 25년동안 해마다 굴진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는 청년혁신자집단이 있다. 그들이 바로 얼마전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차광수청년돌격대이다.

돌격대가 조직될 당시까지만 해도 이들이 탄광을 떠메고나갈 기둥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하다면 무엇이 그들을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청춘의 자서전에 위훈만을 새겨가는 청년혁신자집단으로 되게 하였는가.

집단을 단합시킨 사회주의증산경쟁

차광수청년돌격대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것은 주체99(2010)년 8월이였다.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충천했다. 이에 맞게 부문당위원회는 더 높은 굴진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였다.

아름찬 과제였다. 하지만 배심은 든든했다. 부문당위원회는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통해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최대의 실적을 내도록 하기 위한데로 사업을 지향시켜나갔다.

우선 경쟁대상을 세분화하고 범위를 넓히였다.

돌격대장으로부터 갓 들어온 돌격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돌격대원들이 경쟁참가자가 되였다.

경쟁조항들도 새로 내왔다. 막장조건에 맞게 진행할 정치사업내용, 좋은일하기운동을 벌리기 위한 내용 등이 반영되였다. 특히 돌격대의 특성에 맞게 초소들사이의 경쟁을 중시했다.

부문당위원회사업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이 있다. 경쟁이 순수 실적을 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집단적혁신, 련대적혁신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경쟁으로, 뒤떨어진 단위, 뒤떨어진 사람이 없이 다같이 도와주면서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기 위한데로 지향되도록 한것이다.

실례로 1조의 돌격대원들이 회수동발을 막장까지 운반하여 다음교대의 생산에 지장이 없게 도와준 소행이 알려졌을 때 높이 평가해주었다. 이렇게 되자 돌격대에 집단주의기풍이 더욱 차넘치게 되였다. 짧시간을 리용하여 레루와 침목, 레루못을 회수하기 위한 사업 등이 활기있게 벌어졌다.

경쟁에서 우승한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특색있게 조직하였다. 특히 우승한 단위의 막장에서 진행한 보여주기사업은 단위들사이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경쟁총화도 돌격대원들의 심리와 구체적정황에 맞게 하였다. 총화뒤끝에 조별로 체육경기를 조직하고 시상도 크게 한것을 놓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돌격대원들을 단합시켜 전투력을 떨치게 하고 사기를 높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이 나날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도입하여 발파효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였으며 지난 7년간 2 000여㎥의 동발과 20여m의 레루를 회수리용하고 올해 8월초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은 집단을 단합시키고 결의목표수행에로 떠밀어 비약의 지름길을 열게 한 원동력이였다.

뜨거운 인정미가 안아온 성과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갱이 무글부글 끓고있던 어느날이였다.

부문당일군은 김철수돌격대장과 함께 피동무가 속한 단위의 굴진실적이 떨어지고있는 문제를 놓고 당초급일군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피동무때문에 더 실적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부문당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결국 준비된 사람들만 가지고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자는것이 아닌가.

그날 부문당일군과 돌격대장은 그간 사업정형에 대해 깊이 돌이켜보았다.

돌격대원들을 위해 병실과 식당, 목욕탕도 꾸려놓고 살림집 보수도 해주었다. 매달 그들의 생일상도 차려주고 결혼식을 할 때에는 그 준비도 해주는 등 친어머니심정으로 돌보아주기 위해 애를 썼었다. 하지만 돌격대원들의 마음속을 다 헤아려보려면 아직 멀지 않았는가. …

《저에게 피동무를 맡겨주십시오.》

김철수돌격대장의 말이였다.

돌격대원들을 친동생처럼 아끼는 그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부문당일군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돌격대장은 곧 피동무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집에는 그가 없었다. 크지 않은 집에 여러 식구가 함께 모여사는것을 본 돌격대장의 발걸음은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돌격대에 자원진출한 피동무, 일욕심이 많고 의리심도 있으며 어려운 일에 몸을 적실줄 아는 그였다. 그런 그가 왜 바른길로 갈수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대장은 그가 있을만 한 곳은 다 갔다. 하여 끝내 그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일만 일이라고 동무의 집에도 한번 가보지 못한 나를 욕많이 하시오.》

자기를 꾸짖을줄 알았던 돌격대장의 말에 피동무는 어리둥절해졌다. 그가 더욱 놀란것은 탄광으로 돌아와서였다. 자기가 쓰고살 살림집까지 마련되어있는것이 아닌가.

그는 스스로 자신을 질책하였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피동무의 두다리가 뜻하지 않게 골절되였을 때였다.

덕천시인민병원에서 열린 의사협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치명적이였다. 두다리를 잘라야 한다는것이였다. 이때 대장이 의사들에게 한 말은 얼마나 절절했던가.

《명철동무는 당의 뜻을 받들고 돌격대에 온 제대병사입니다. 그의 다리를 원상대로 고쳐줄수만 있다면 나의 두다리라도 바치겠습니다. … 》

이에 고무된 의료집단이 떨쳐나섰다.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이 되여 두다리를 자르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데 성공했다. 그가 입원해있는 기간 돌격대지휘관들은 텔레비죤수상기를 마련하여 그의 집에 보내주었고 올타리도 보수해주게 하였다.

지난 5월 돌격대조직당시 첫 당세포위원장이였던 량부일아바이가 돌격대원들의 축복속에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부문당일군들의 뜨거운 인정미에 끌려 그는 나이가 많지만 스스로 막장에 나와 보전공으로 일하고있다.

뜨거운 인정미는 돌격대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들고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놓게 한 요인의 하나였다.

그 나날 돌격대의 모든 당세포가 충성의 세포가 되였고 청년동맹초급단체는 청년전위3중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녔다.

사회주의증산경쟁과 뜨거운 인정미로 집단을 단합시키고 대중운동에서 비약을 안아오게 한 부문당위원회의 사업은 경험적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혜 산 시 에 서

삼지연군으로 달리는 마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삼지연군으로 향한 압록강기슭의 도로를 따라 한대의 뻐스가 달리고있었다.

뻐스에는 혜산시의 로당원들과 공로자들, 년로보장자들이 타고있었다.

한생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 성실히 일해온 이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있는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로 더 잘 꾸리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전투장들을 찾아가고있는것이다.

뻐스의 앞자리에는 칠순이 되여보이는 녀성이 앉아있었다. 그가 바로 혜산시 신흥동 10인민반에 사는 김귀순녀성이였다.

수십년간 보건일군으로 일한 그가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을 찾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어느날 당일군으로 사업하고있는 맏사위가 말하였다.

《어머니, 지금 삼지연군꾸리기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다싶이 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잠들수가 없었다.

자책감을 안고 모대기던 그는 혜강동에서 사는 조분녀녀성을 찾아가 삼지연군꾸리기에 적은 힘이나마 바칠 의향을 이야기하였다.

조분녀녀성은 김귀순녀성의 손목을 꼭 잡았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에요.》

이러한 심정은 그들과 동년배들인 김영옥, 송영희, 문명희, 김명심, 홍기순녀성들사이에도 오갔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저저마다 지성어린 물자들을 마련하였다.

지원물자뿐아니라 돌격대원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예술소품도 준비하였다. 그 대오에는 한생을 교단에서 보낸 황성순로인도 있었는데 그는 격동적인 선동글을 품들여 준비하였다.

처음에는 20명 남짓하던 지원자대오가 이제는 30명으로 늘어났다.

용접의 불꽃이 날리고 중기계들의 우렁찬 동음이 그칠새없는 건설장들을 찾고 또 찾는 그들의 모습은 항일의 나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원호물자를 지고 백두의 준령을 넘던 인민들의 억센 기상을 방불케 하였다.

뻐스를 타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건설장에 도착한 로당원들과 공로자들, 년로보장자들은 돌격대원들을 향해 웨쳤다.

《저희들의 몫까지 다 합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꾸리기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쳐주십시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전세대들의 절절한 부탁을 받아안은 돌격대원들은 삼지연군을 세상에 둘도 없는 전국의 모범군, 표준군으로 꾸려나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특파기자 전 철 주

나의 포전에 바쳐가는 뜨거운 진정

김책시 송암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울리는 부름이 있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 나의 포전은 곧 나의 조국이다. 우리의 애국심을 알려면 나의 포전을 보라!

이런 신념과 의지를 안고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끝까지 지키고 빛내이려 사회주의협동전야에 후더운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뿌려가는 미더운 전초병들의 대오속에는 김책시 송암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디서나 들끓었다. 농장원들 모두가 바쁘게 뛰며 일손들을 놀리였다.

남새제2작업반의 포전에서는 거름더미를 쌓아가는 농장원들의 땀흐르는 얼굴이 안겨오고 남새제3작업반에는 바람막이 바자와 나래, 버림대를 비롯하여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들이 가득 쌓여있었다.

(이쯤 되면 다음해농사도 문제없겠군.)

이런 생각에 절로 마음이 즐거워지는 관리위원장 김태식동무의 눈앞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무조건 관철할 일념을 안고 숨결도 보폭도 하나로 맞추며 힘껏 달려온 지난날들이 감회깊이 떠올랐다.

지난 1월 수백t의 도시거름을 실어들이기 위한 전투를 눈앞에 둔 때였다. 농장이 보유하고있는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한다고 하여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려야 했다. 그렇게 되면 다음영농공정을 계획했던대로 진척시킬수 없었다. 방도를 모색하던 김태식동무의 결으로 초급당위원회일군인 리용만동무가 다가왔다.

《농장원들은 무조건 제기일내에 도시거름을 운반하겠다고 한결같이 결의해나섰습니다. 농장원들의 심장이 울렸는데 주저할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명령을 내리십시오.》

자신과 순간도 떼어놓고 생각한적 없는 나의 포전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런 농장원들이 있는데야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

뜨락또르들과 60여대의 소달구지들이 일제히 도시거름운반전투에 진입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김책시의 인민들은 입을 딱 벌리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뜨락또르들이 만가동했고 농장원들은 거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르겠다고 거름지게를 등에 진채 소들을 몰아갔다.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이 벌어지고 운반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올라 도시거름운반전투는 제기일보다 앞당겨 결속되였다.

제 집쌀독보다 나라쌀독을 먼저 생각하며 량심과 진정을 바쳐가는 농장원들속에서 발휘된 아름다운 소행들은 또 얼마나 돋보였던가.

김매기전투가 시작된지 3일째 되던 어느날 아침 작업반장 김광일동무는 호미를 들고 어느 한 포전으로 향했다. 방금 아이가 태어난 신혼부부세대가 담당한 포전이 걱정되여서였다. 포전에 다달은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분조장과 분조원들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김을 매나가고있었던것이다.

《자기 맡은 포전일도 바쁘겠는데 모두가 나왔구만.》

등뒤에서 들려오는 작업반장의 기쁨에 넘친 말에 그제서야 허리들을 편 분조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우리에겐 네 포전, 내 포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책임적으로 가꾸어야 할 우리 포전, 나의 포전만이 있을뿐입니다. 모든 포전들에 알찬 열매가 맺혀야 그만큼 나라의 쌀독이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거짓을 모르는 땅처럼 당과 조국을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받들어가려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이처럼 사심없고 열정적인것이였다.

나의 포전을 당중앙뜨락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나의 포전의 다수확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비상한 정신과 각오를 안고 후더운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리며 말겨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기어이 수행한 그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는 송암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알곡증산투쟁을 당중앙옹위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으로 여기며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의 포전을 굳건히 지켜가는 이런 미더운 애국농민들이 있어 우리의 혁동벌에는 언제나 황금벌의 장쾌한 설레임소리가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눈속에서도 새싹이 움튼다

* 문덕군산림경영소에서 *

문덕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최근년간 나무모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방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조건들을 튼튼히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곳 모체양묘장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2년전까지만 하여도 나무모생산에서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던 단위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나무모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갖춘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으로 그 모습을 일신한것이다. 결코 쉽게 마련된 결실이 아니다.

사실 합성수동무가 이곳 지배인으로 임명되여왔을 당시 산림경영소의 실태는 시원치 못하였다. 안팎을 돌아볼수록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하지만 자기를 이곳으로 떠나보낼 때 군당책임일군이 하던 말이 가슴을 울려주었다.

《물론 현재 경영소의 형편은 어렵소. 그러나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당의 뜻을 뼈에 새기고 달라붙으면 결코 못해낼 일이 없다고 보오.》

다음날부터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나무모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불같은 날과 날을 이어나갔다. 건설과 생산을 다같이 밀고나가자니 제기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는 종업원들을 굳게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막아서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건설과정에 시간적여유가 생기면 누구나 양묘장의 흙깔이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였고 나무모비배관리를 하면서 얻어낸 짬시간마저도 석축공사에 쓸 돌을 채취하는데 바쳤다. 그야말로 온 경영소가 푸른 숲 우거질 고향산천의 더 좋은 래일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불같은 애국충정의 날과 달을 이어나갔다.

나무모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군의 책임일군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건설과 나무모생산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영양단지생산기지를 비롯한 생산건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모체양묘장은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였다. 뿐만아니라 맡겨진 나무모생산계획도 종전의 근 2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기 위하여 이들은 나무모온실을 새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물론 온도와 습도, 빛세기 등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단위공간에서의 리용률을 높여 나무모를 집약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온실을 짓겠다고 했을 때 산림복구전투승리가 담보된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앞선 나무모생산기술을 한가지라도 더 습득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배우고 또 배웠다.

그리하여 나무모생산의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해나갔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은 올해의 나무모생산계획을 19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지금 이곳 모체양묘장과 그 주변에는 흰눈이 수북이 내려쌓여있다. 하지만 이곳 종업원들의 불같은 애국의 마음을 자양분으로 하여 그 눈밑에서도 새싹들은 움트고 자란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내며 자라나는 하나하나의 새싹들에서 우리는 그려본다.

가까운 앞날에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될 내 조국의 모든 산들을.

본사기자 리 호 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056호 주체106(2017)년 12월 22일

함경북도 회령시에 모범체육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였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고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군중체육경기들과 체육선수후비육성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함경북도 회령시에 모범체육시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057호 주체106(2017)년 12월 22일

평양시 은정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교육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평양시 은정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폐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을 맞으며 지난 1일에 개막되였던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경기대회기간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일념안고 훈련열풍속에서 다져온 육체기술적 및 전술적능력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겨울철체육종목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폐막식이 28일 빙상관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경기대회성적이 발표되였다.

단체종합에서는 대성산체육단이 우승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우승컵, 메달들이 수여되였다.

체육상 김일국동지는 폐막연설에서 모든 체육인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더 높은 체육기술을 소유하고 국제경기들에서 많은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폐막식이 끝난 다음 이번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빙상휘거선수들의 모범출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좋은 품종의 꽃들을 가꾸어가고있다.

—평양화초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비 육 분 조 장 의 보 람

길주군 백원협동농장 제2작업반에 가면 이악하기로 소문난 비육분조장 심영화동무를 만나볼수 있다. 고기와 닭알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긍지와 보람을 느끼군 하는 심영화동무와 비육분조원들이다. 처음 분조장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어느 하루도 마음편히 잠들수 없었다.

축산은 욕망만 가지고 성과를 거둘수 없는 일이기때문이였다. 그는 축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작들을 학습하는 과정에 자기 힘을 굳게 믿을 때 지름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심영화동무는 밤을 새워가며 참고서적을 탐독했고 앞선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밤길도 많이 걸었다. 분조원들 모두가 그를 따라나서 노력한 결과 집짐승마리수는 계속 늘어만 갔다. 그 과정에 분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집짐승병예방과 축산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경험과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집짐승마리수를 근 10배로 늘이였다.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하군 한다.

《많은 고기와 알을 유치원과 탁아소에 보내주고 농장원세대들에도 공급해줄 때마다 자기 손으로 이 모든것을 창조하였다는 기쁨과 보람이 커서 새 힘이 용솟음치군 합니다.》

본사기자

면밀한 타산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홍원군 봉화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 다음해농사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기 위하여 포전들을 돌아보는 홍원군 봉화협동농장 판리위원장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물론 거름생산과 모판자리만들기 등 다음해농사차비와 관련한 사업에서 거둔 성과도 컸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다음해농사준비에서 놓쳤다거나 미흡한 점이 없겠는가.

최복순판리위원장은 올해농사과정에 제기되였던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곰곰히 따져보았다. 특히 흙보산비료생산의 기본원료인 너탄캐기에 드는 로력과 시간 등에 대해 면밀히 타산해보았다. 그 과정에 농장이 바다가 가까이 있어 겨울철이면 해풍이 자주 불군 하였다는 사실, 더우기는 땅이 얼어붙어 너탄캐기에 적지 않은 품이 든다는 사실에 주목을 돌리였다.

그러나 판리위원장의 립장은 명백하였다.

《조건이 어렵다고 물러서고 난관이 막아선다고 주저앉는다면 지력을 높일수 없고 다음해농사에서 성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당정책의 운명이 우리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면 결코 못해낼 일이란 없다고 봅니다.》

정원모리당위원장도 그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리당위원장은 우리 일군들이 만짐을 지고 앞장선다면 얼마든지 높이 세운 너탄캐기목표를 점령할수 있다고 하면서 작업반 초급일군들을 교무추동하였다.

일군들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은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돌아가는 즉시 바람막이바자만들기를 진행하면서 너탄캐기와 운반을 동시에 내밀기 위한 면밀한 작전을 세웠다.

농장원들의 정신력이 총폭발되고 그에 따라 너탄캐기전투장에서는 날마다 실적이 올랐다. 성과가 오를수록 농장일군들은 연유가 긴장한 조건에 맞게 너탄운반에 부림소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워나갔다. 그리고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갖추도록 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또한 농장원들과 한데 어울려 너탄을 캐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일군들의 이런 남다른 이신작칙과 격식없는 화선식정치사업은 대중을 혁신에로 떠밀어주는 밑거름이 되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다음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농장원들이 한줌의 너탄이라도 더 캐기 위해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농장적인 너탄캐기실적은 시간을 다투며 계속 올랐다.

그리하여 다음해농사차비에서는 또 한걸음의 전진이 이룩되였다.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늘 사색하며 면밀한 타산과 실천으로 다음해농사차비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김 강 철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대동강구역 옥류소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일신시킨 구역의 일군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대동강구역 옥류소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뒤떨어져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의 모습이 완전히 일신되였으며 수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오는 본보기학교로 온 나라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는 이러한 놀라운 변천을 위해 대동강구역 일군들이 바쳐온 헌신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런 후대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앞날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합니다.》

올해 4월 1일 옥류소학교의 새 학년도 개학식에 참가하였던 많은 학부형들이 품들여 꾸려놓은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실험실습실들, 교육교양직관물들로 꽉 채운 복도벽들을 보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수십년전에 건설된 학교의 낡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지 못하였다.

사실 학교에서는 몇년전부터 아글타글 노력하여 교사내부공사와 다기능화된 교실꾸리기, 보조건물건설을 비롯하여 많은 일을 해놓았다. 그러나 품이 제일 많이 드는 지붕공사와 교사외벽 타일붙이기작업을 하지 못하다보니 도무지 빛이 나지 않았다.

그날 교사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한 일군이 있었다. 개학식에 참가하였던 구역당위원장인 전금철동무였다.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당책임일군의 얼굴에는 안타까운 기색이 어려있었다. 당시로 말하면 이미 어느 한 학교를 구역적인 본보기학교로 꾸리려고 선정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뒤떨어진 학교를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냥 스쳐지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당책임일군은 얼마후 옥류소학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내밀기 시작하였다. 학교의 교육자들은 모두가 주인다운 자세와 립장에서 학교꾸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를 돌아보던 구역당책임일군은 벽체에 붙인 일부 타일면이 고르롭지 못한것을 보게 되였다. 학교에서 로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다보니 기능이 낮아 그렇게 되였다는것을 대번에 짐작할수 있었다.

(지금 당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려고 깊이 마음쓰고있는데 우리가 모든것을 완벽하게 꾸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교양사업과도 련관된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한 책임일군은 수십명의 우수한 기능공들을 학교에 보내주도록 하였다.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여 학교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자고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정치사업도 하고 후방사업도 통이 크게 밀어주는 구역일군들의 헌신적인 사업기풍은 전투장에 활력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구역일군들의 구체적인 지도방조속에 짧은 기간에 외벽타일붙이기작업이 끝난데 이어 색철판기와씌우기작업까지 결속됨으로써 학교는 몰라보게 환해졌다.

교장 박봉희동무는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교원대중을 발동하여 야외수영장까지 훌륭히 개건해놓았다. 교직원들도 학생들도 학부형들도 모두가 기뻐하며 학교자랑을 하였다.

누구나 이쯤하면 하고 만족을 느끼고있을 때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는 한 일군이 있었다. 구역당책임일군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평양중등학원과 초등학원을 여러차례나 가본 그였기에 마음속에는 이 학교가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 올라서려면 이제야 겨우 첫걸음을 뗀데 불과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것이다.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학교를 돌아보던 구역당책임일군의 눈길은 운동장에서 멈추어섰다.

저 드넓은 운동장에 인공잔디를 깔아준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랴.

그런데 얼핏 짐작해보아도 너무도 많은 품이 들것 같았다. 구역적으로 중요한 공사들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이 학교에 새로운 일판을 벌려놓는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고 깊이 생각해본 당책임일군은 힘든 결심을 내렸다. 당에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을 더 활짝 꽃피워주는 일보다 더 중대한 사업이 없다는 자각이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던것이다.

곧 일군협의회가 진행되고 구역안의 책임일군들부터가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한가지씩 맡아나섰다.

그리하여 지난 8월부터 인공잔디를 깔기 위한 방대한 전투가 벌어졌다. 기어이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으니 어렵게 생각되던 문제들이 척척 풀려나갔다. 대형삽차와 대형자동차들을 비롯한 중기계들이 꼬리를 물고 학교운동장에 들어서 수많은 버럭을 처리하였다.

리정희, 김명학, 문동철동무를 비롯한 구역의 일군들은 먼 후날에도 페이지 않게 지반조성을 잘해놓은 다음 학교운동장에 멋진 인공잔디를 번듯하게 깔아주었다.

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수천㎡의 학교구내길포장도 성의껏 해주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낡은 체육기재들을 전부 들어내고 구역안의 공장들에서 훌륭히 제작한 종합체조대, 철봉, 수평사다리, 그네, 회전그네 등 수십종에 60여점에 달하는 체육기재들을 새로 설치해주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학교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해 교제림에 수백그루의 꽃관목들을 정성껏 심고 70여점의 동물표본들을 동물들의 특성에 맞게 하나하나 배치해주었다. 또한 수백m의 학교울타리를 새로 개건하고 150점의 상식소개판을 붙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환하게 일신시켰다. 계속하여 구역의 일군들은 학생들의 실물교육을 위해 많은 품을 들여 총합적인 기상수문관측계기들도 일식으로 마련해주었다.

이밖에도 이들이 학교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깨우쳐주고 아글타글 뛰어다니며 해결해준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다.

우리는 학교를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꾸려주기 위해 책임일군들이 학생들의 교과서들을 통달할 정도로 깊이 연구하였다는 학교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이 후대교육사업에 얼마나 불같은 진정을 바쳐가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단 몇달만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히 꾸려진 대동강구역 옥류소학교, 이 학교의 교정은 이렇게 속삭이는것만 같다.

모든 일군들이 대동강구역 일군들처럼 어머니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뛴다면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그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본사기자 김 명 훈

인간사랑의 화원속에 누려가는 행복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충만된 이세가 저물어갈수록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더욱 격조높다.

얼마전 평성시 온덕2동 11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림도화녀성이 보내온 편지의 글줄을 읽어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가 전하려고 하는 사실 역시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이야기였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환자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정성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의 집중적 표현입니다.》

림도화녀성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보건성 하단병원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도 저의 근심은 좀처럼 사라질줄 몰랐습니다. 중앙의 이름있는 병원도 아니고 명칭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그곳에서 과연 내 다리를 고칠수 있을가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보니 그곳은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넘쳐흐르는 훌륭한 의료봉사기지였고 의사, 간호원들모두가 풍부한 림상경험과 높은 의술, 뜨거운 정성을 지닌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들이였습니다. …》

이것은 결코 어느 한순간의 즉흥적인 감정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였다.

림도화녀성에 대한 치료에 진입한 이곳 의료일군들앞에는 처음부터 큰 난관이 막아나섰다.

화상진단을 통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웠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닌 이들에게 넘지 못할 난관, 뚫지 못할 장벽이란 없었다.

병원의료집단은 풍부한 림상경험과 최신의학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연구를 거듭하며 방도를 모색하던 과정에 진단을 확정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림도화녀성은 해당 분야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수술을 받게 되였다.

딸을 통하여 오랜 시간 긴장한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박학철기술부원장과 리광수과장을 비롯한 사지정형외과 의사, 간호원들의 온몸이 땀으로 화락 젖어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림도화녀성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런 큰 수술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은 너는 과연 누구인가.

어디선가 들려오는것만 같은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이다.

하다면…

생각이 깊어질수록 림도화녀성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당의 품, 환자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닌 훌륭한 보건일군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걷잡을수가 없었다.

《제가 만일 자본주의사회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병원문앞에도 못 가보고 숨졌을것입니다. …》

림도화녀성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한마디에 담았다. 그러나 그것은 열백마디의 말보다도 더 뜨겁고 진실한 이 나라 공민의 목소리였다.

그의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곳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메일과 같이 찾아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던 병원일군들이며 한가지 별식이라도 더 마련해주기 위해 마음쓴 의사, 간호원들…

그중에서도 그의 병상태를 하루빨리 호전시키기 위해 교려치료를 배합해가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인 담당의사 차제봉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뜨거웠다.

진정 입원치료를 받은 길지 않은 나날은 그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보건일군들은 자기의 피와 살, 뼈까지도 환자를 위하여 서슴없이 바치는 인간생명의 기사들임을 절감하게 한 날들이였다.

하기에 그는 편지의 마감에 이렇게 썼다.

《위대한 당의 인민사랑이 넘쳐흐르는 이 땅, 남이 없고 낯설은 고장이 따로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있어 저와 같은 평범한 녀성도 이런 행복을 누려가는것 아니겠습니까.》

본사기자 조 향 미

예술선동의 실효와 방법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잘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이 부단히 변화되는 현실에 맞는 예술선동의 만능치방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올해에만도 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와 설비집중보수전투를 비롯하여 방대하고도 긴장한 전투들이 진행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건설규모가 크고 보수전투일정이 긴장한데 맞게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방법론있게 진공적으로 벌려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련합기업소의 기동예술선동대활동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기동예술선동대활동에서 전투정황에 맞게 집중과 분산활동을 잘 배합한것이다.

지난 10월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집중보수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업원궐기모임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여 시간이 흐르자 일부 종업원들속에서는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이 부족한데 보수기일을 꼭 보장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투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전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기 위하여 정치사업의 중심을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강화하는것으로 정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그 방법도 직장들을 찾아다니며 진행하던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 특색있게 조직진행하였다.

그것이 집중과 분산활동이였다. 방송선전차에서 전투원들을 기적과 혁신에로 고무추동하는 선동문이 울려나오고 그 여운이 가라앉기 전에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취주악으로 《적기가》와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를 비롯한 격동적인 노래들을 연주하며 전투적기백이 맥박치는 구호와 표어들을 들고 기업소구내를 행진해나가는 모습은 로동자들의 심장을 달구어주었다.

이러한 집중적인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이 끝난 후에는 소편대들이 주요전투장들에 달려나갔다.

그들은 로동자들이 설비보수전투를 진행하는 합성탑우에 올라가 노래도 부르고 일손도 도와주었다. 반인륜적인 《제재결의》로 우리 공화국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으려는 원쑤들의 정수리에 비로폭포를 들씌우자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화선식선동과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로동자들은 위력한 음악포성이 힘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전투목표수행에 만족해하겠는가고 하면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 대한 방대한 설비집중보수전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의 기동예술선동대활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사람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것이다.

지난 시기 기업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이라고 하면 격동적인 선동문과 노래만을 가지고 하는것으로 여기였었다. 하지만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사람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해 사색하고 노력하면 그 실효가 보다 커진다는것이 올해 여름 련합기업소에서 벌린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통하여 찾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다.

올해 레년에 없는 무더위로 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비료생산과정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압축기대보수전투가 진행될 때에도 서둘러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파견하지 않았다. 당위원회에서는 로동자들이 무더위속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데 맞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그들에게 노래와 시만이 아니라 시원한 오이랭국도 함께 가지고 가 예술선동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하여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직접 나서서 준비한 얼음이 둥둥 뜨는 시원한 오이랭국을 가지고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전투현장에 나타나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무더위속에서 전투를 벌리던 로동자들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권하는 오이랭국을 받아안고 웃고 떠들며 기뻐하였다. 목안의 겨불내가 가셔지니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전투적인 호소와 노래소리가 귀에 더 쏙쏙 들어온다는 꾸밈없는 목소리도 이때에 울려나오게 되였다. 혁명의 노래와 함께 따뜻한 정을 안고 찾아온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모습은 가는 곳마다에서 로동자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들의 예술선동은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였다.

련합기업소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은 예술선동에서는 고정된 형식이 따로 없으며 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어는데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의 중심을 정하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내야 한다는것과 생산자대중을 친혈육처럼 대할 때라야 예술선동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차 수 인

참된 복무자의 긍지

평원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인민보안원 진광남동무

명절날과 휴식일에 그를 만나려면 로병들이나 영예군인의 집에 찾아가면 된다는 이야기, 유치원의 철없는 꼬마들이 멀리에서 그가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 보안원삼촌이라고 부르며 달려가 안긴다는 이야기, 언제나 사업과 생활을 친형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는 그에게 청년분조원들이 처음에는 《바쁘실텐데…》하고 인사말을 하였으나 거듭 찾아오는 그를 어느덧 기다리게 되였다는 이야기…

돼지우리와 닭우리, 토끼우리가 가득 들어찬 그의 집뜨락은 작은 《목장》을 방불케 한다.

진광남동무와 안해 김은정동무는 여기에서 한해에 수십마리의 돼지와 100여마리의 토끼와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을 길러내고있다.

올해에도 그들부부는 부업으로 마련한 수많은 물자들로 평원군 원암고급중학교와 어느 한 작업반의 탁아소를 더 잘 꾸리도록 도와준것을 비롯하여 농장을 위한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농장원대중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소문없이 큰일을 하면서도 우리와 만난 진광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야 인민보안원이 아닙니까. 인민앞에 언제나 떳떳이 나서고싶었을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사랑하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온 세상에 높이 내세워주신 우리 인민앞에 떳떳이 나서는것, 바로 이것이 참된 복무자의 더없는 긍지인것이다.

김 국 철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합평회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천리마구역 학생소년회관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일욕심많은 녀성분조장들

명천군 마산협동농장

제5작업반과 제7작업반의 비육분조장들인 리복희, 김옥분동무들은 일 잘하기로 소문난 녀성분조장들이다. 이들은 7년이상 분조장사업을 해오면서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다. 리복희동무가 처음 분조장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시원치 못했던 축산토대였다. 하지만 마음먹고 달라붙어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지금은 축사마다에 돼지와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들이 욱실거리고있다. 집짐승마리수가 늘어날수록 그는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사양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애쓰고있다.

김옥분동무 역시 당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알곡먹이소비량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또한 축산에서 앞선 단위들을 찾아가 배워온 좋은 경험을 농장원들에게 제때에 알려주어 그들이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분조들의 축산물생산량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오늘도 이들은 더 높은 축산물생산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해 앞장에서 헌신하고있다. 이런 그들을 두고 분조원들은 일욕심많은 분조장들이라고 정담아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성 철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축산물생산을 늘이고있다. —태천청년토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따뜻한 정 넘치는 사회주의 우리 집

각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지난 수십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오산덕에 높이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주변판리사업을 진행해오고있는 회령시 동명동 3인민반 조순희동무의 소행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영예군인 남편의 뒤시중을 하면서 원군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그는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던 그 나날에는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웠다.

평천구역 새마을2동 5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리성구동무도 병사시절의 모습으로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워가도록 온갖 성의를 다해 돌봐주고있는 평천구역당위원회와 평천구역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을 비롯한 구역안의 많은 사람들의 미담들을 전해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우리 집, 이 미덕의 화원에 넘치는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하여 우리의 생활에는 언제나 그윽한 향기만 풍기는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집!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가슴에는 따스함이 깃든다. 부모와 자식, 형제들사이의 사랑과 정이 뜨겁게 넘치는 행복의 보금자리에 비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을 우리 집이라 부른다.

사람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의 집,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랑의 집, 행복의 요람이라는것을 우리는 각지 독자들이 보내여온 편지를 통해서 나날이 더욱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겨울 어느날, 청천강의 얼음판우에서 뛰놀던 3명의 학생들이 그만 얼음이 꺼지면서 물속에 빠져들었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얼음을 짝 붙잡고 그들이 아무리 고함을 쳐도 주위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청천강과 가까이에 있는 도로를 따라 달려가던 화물자동차가 급히 멎어서더니 운전칸에서 누군가가 나는듯이 뛰여내렸다. 얼음판을 가로질러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냅다 달려간 그 사람은 차디찬 얼음물속으로 주저없이 뛰여들었다. 학생들을 한명한명 안아 얼음우로 떠밀어올리고 다시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안아다 운전칸에 태운 그는 마을로 차를 몰아갔다.

구사일생으로 구원된 자식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던 부모들이 뒤늦게야 고마운 운전사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자기들을 구원해준 그날의 운전사가 구성시 성안동 38인민반에서 사는 리창룡로인임을 알게 된것은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후였다.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며 거듭 인사를 하는 개천시의 최영숙, 김순이, 구장군의 김복실녀성들에게 리창룡로인은 흔연히 말했다.

《우리가 뭐 남인가.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행동했을거네.》

혁명동지, 친혈육의 사랑과 정만이 가득차있고 남이란 없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에 대해 더욱 뜨겁게 느끼였다고 하면서 온성군 상화로동자구 96인민반 정철호동무가 전해온 사연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저의 안해는 어제날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제대군판입니다.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의 정황속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심하게 다친 그는 그만 제대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런 그와 가정을 이룬 때로부터 마을은 물론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모든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친혈육과도 같은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기울여주었습니다. …》

정철호동무가 영예군인안해와 함께 병치료를 위해 평양으로 가는 렬차에 올랐을 때였다. 그들에 대하여 알게 된 철도일군들과 렬차원들이 려행길을 편히 갈수 있도록 자리도 잡아주고 구미에 맞는 음식들도 마련해주며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렬차가 서평양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초면인 사람들이 짐도 들어주고 려관에까지 안내해주었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찾아와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명절날에는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찾아오는 선교려관의 봉사자들을 보면서 정철호, 남명희동무는 수도시민들의 후더운 인정미를 느끼였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때에도 주소성명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아낌없는 진정을 바치였다.

극단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동지애의 화원에서 혁명선배라는 값높은 호칭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속에는 동대원구역 동신2동 13인민반 류혜숙로인도 있다. 비록 돌볼 사람이 없는 년로자이지만 류혜숙로인은 언제 한번 외로움이나 생활의 불편을 모르고 살아왔다. 지난 김장철에도 그의 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평양시당위원회의 일군들과 여러 단위의 많은 일군들이 땔감도 마련해주고 김치감들도 넉넉히 장만해주면서 그의 생활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었다.

지난 수십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오산덕에 높이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주변판리사업을 진행해오고있는 회령시 동명동 3인민반 조순희동무의 소행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영예군인 남편의 뒤시중을 하면서 원군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그는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던 그 나날에는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웠다.

평천구역 새마을2동 5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리성구동무도 병사시절의 모습으로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워가도록 온갖 성의를 다해 돌봐주고있는 평천구역당위원회와 평천구역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을 비롯한 구역안의 많은 사람들의 미담들을 전해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우리 집, 이 미덕의 화원에 넘치는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하여 우리의 생활에는 언제나 그윽한 향기만 풍기는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갈것이다

올해는 주체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친 해이다.

최근 미국의 국제관계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는 본지에 실은 론펑에서 《2017년은 조선에 있어서 미국의 핵공갈에 대처한 직접적인 억제력을 보유한 특별한 해》이라고 평하였다.

미국언론들도 이처럼 부정할수 없으리만큼 우리 공화국은 자기 력사에서 가장 팔목할만 한 사변들로 올해를 가득 채웠다.

우리 국가만큼 미국의 극악한 핵공갈을 끊임없이 받고있는 나라,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그에 떨떨하게 동조하는 나라들의 반인륜적인 제재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있는 나라는 이 행성의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한 속에서 년초에 우리 공화국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온 세계가 놀랐다. 조선이 과연 그런 기적을 낳을수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미국의 미치광이대통령인 트럼프는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진행하는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것이라고 희떱게 놀아댔다. 봉쇄속에 있는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절대로 개발할수 없으며 또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것이였다.

미국은 핵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각종 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순환식으로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우리 국가를 위협공갈하였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통채로 빼앗아내려고 초강도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렸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가로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올해의 조미대결전은 시작부터 핵전쟁의 문어구에서 치렬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외부세계의 눈으로 볼 때 조선에서는 생존자체가 기적이였고 발전은 절대불가능이였다. 그러나 그 땅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특대사변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났다.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및 탄도로케트,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들이 개발완성되여 시험발사에서 대성공하였고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도 개발되여 장쾌한 폭음으로 온 행성을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 지략과 강인담대한 배짱에 의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한 늙다리 미치광이 트럼프의 호언장담은 그야말로 맥빠진 개탄으로 끝나고말았다. 조선의 맹렬한 돌진을 가로막기 위해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잡다한 《제재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냈지만 그것들은 무한계도에 짓이겨지는 잡풀처럼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였다.

주체조선의 경제는 장성하고있다. 사회주의문화의 개화발전이 다그쳐지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줄기차게 흘렀다. 자력으로 만든 새형의 뜨락또르들과 자동차들이 농장벌로 달리고 있다.

결국 미국은 있는 힘을 다하여 주체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였지만 끝내 실패하였다. 미국의 힘은 절대로 만능이 아니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확신하고 자력자강을 동력으로 하여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서는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한다는것이 다시한번 똑똑히 확증되였다.

가장 격렬한 힘과 정신력, 지혜의 대결에서 미국은 세계면전에서 수치스럽게 패배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를 통해서 세계가 찾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내슈널 인터레스트》에 실린 론펑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잡지는 조선의 핵보유의지는 굳건하며 그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막대한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여있다는것, 위협으로는 결코 조선을 멈춰세울수 없다는것이 올해에 국제사회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올해 조미핵대결전에 대한 총화이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 언론들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가들, 전 뿔스까외무상 시꼬르스끼 등 국제문제전문가들도 류사한 평가를 내리고있다. 그들은 조선이 핵대국으로 되였으며 미국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것, 미국이 조선의 핵포기를 위해 대책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것, 새해에 들어가 조선은 핵대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것이라는것 등의 주장들을 내놓고있다.

그렇다. 2017년에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다가오는 새해에 더 위대한 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하는 굳건한 토대로, 발판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절감하는것이 있다. 그 정당성이 뚜렷이 실증된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갈 때 적들의 온갖 발악적도전을 짓부셔버리고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미국은 저들이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걸고 머칠전에 또 하나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그따위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로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를 꺾고 주체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아보겠다는것은 어리석은짓이다.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핵억제력을 빼앗아보겠다는것은 그야말로 바다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것과 같이 허황한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제 존엄을 깎으며 미국의 범죄적행위에 동조한 주변나라들도 이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가 목적이고 그를 위한 수단으로 제재가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 전쟁을 방지할수 있다고 떠드는것은 약자의 구차스러운 변명이고 자기기만이다.

이라크, 리비아사태는 전쟁억제력을 포기하면 포악한 제국주의승냥이무리들의 사나운 이발에 물어뜯기워 피투성이가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에서 주변나라들은 핵전쟁발발의 초침소리만을 들으며 심장을 조이지만 우리는 조국통일대업의 완성과 인류사주위업의 승리를 내다보며 배심든든하여 자기 할바를 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주체조선의 확고한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지 못한다.

강 철 수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 특집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빨찌산녀장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14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그리폰 쁘레스찌쥬》, 하바롭스크변강 인터네트신문 《제브리 데웨》,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백두산녀장군의 사진 문헌 과 영상미술작품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녀사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등 제목의 글들을 특집하였다.

글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갔으나 김정숙녀사께서는 수령결사옹위의 고귀한 귀감으로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항일전의 나날에나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에나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변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드리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글들은 우리 나라에서 김정숙동지의 생애와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각지에 그이의 동상을 모시였으며 빨찌산녀장군의 존함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빛나고있는데 대하여, 해마다 12월 24일을 맞으며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정치문화행사들이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김정숙녀사의 탄생 100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력사에는 나라와 민족의 진보와 번영에 기여한 공적으로 이름떨친 녀류명사들이 적지 않지만 김정숙녀사처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걸출한 녀성정치활동가는 없었다.

조선의 함경북도 회령의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여 10대의 소녀시절에 나라찾는 길에 나서신 녀사께서는 지하투쟁과 유격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직업적인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해방후에도 녀사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위한 김일성주석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보좌해드리시였다.

조국과 민족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리신 녀사의 생애는 현대조선의 력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였다.

에파도르 김정일도서관, 에파도르주체청년소조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백두산녀장군의 영상미술작품을 모시고 《애국의 한생,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김정숙녀사의 혁명생애는 참다운 애국자의 한생이였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 그이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편집한 글 《전설적인 빨찌산녀장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족이 낳은 걸출한 녀성혁명가이신 김정숙녀사는 오랜 기간 빨찌산투쟁을 벌리신 녀장군이시였다.

녀사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휘하에서 신묘한 유격전법과 지략을 터득하시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신비한 사격술을 지니시였다.

녀사는 무비의 담력을 지닌 녀장군이시였을뿐아니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분이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전생애를 김일성주석의 친위전사로 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전설적인 빨찌산녀장군의 숭고한 생애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남 조 선 단 체

미국의 생화학무기실험책동에 항의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경기도 평택의 시민사회, 종교단체들로 구성된 《싸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이 26일 미국의 생화학무기실험책동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얼마전 생화학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쥬피터계획》과 관련한 미국방성의 2018회계년도 생화학무기계획예산평가서가 공개되였다.

지난 5월에 작성된 이 문서를 통해 미국이 평택미군기지에 생화학무기실험실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평택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2015년 오산미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것과 관련하여 책임자처벌, 미국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생화학무기실험중지, 실험실폐쇄를 요구하며 투쟁하였지만 미군과 남조선당국이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이 평택미군기지에서도 생화학무기를 실험하려고 책동하고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그들은 항의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지금이라도 사태를 바로 파악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쥬피터계획》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택이 미국의 생화학무기실험장으로 전락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미군의 일방적인 《쥬피터계획》추진을 온몸으로 막아낼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세월》호참사이후 달라진것이 무엇이냐

제천시화재참사피해자들과 유가족들 괴뢰당국자에게 절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에 의하면 2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일어난 특대형화재참사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괴뢰당국자에게 항의를 들이댔다.

그들은 병원에 나타난 당국자에게 화재가 일어난 건물에서 통유리창문만 빨리 깨버렸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것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사람들을 죽여놓은 후에 와서는 뭘하는가고 원성을 터치였다.

《정부》가 사고에 이런 식으로 대처한것이 어디 이번뿐인가고 하면서 그들은 당국자와 일행에게 항의하였다.

그들은 화재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즉시 소방대에 련락하였으나 사고발생초기에 대응이 늦어져 사람들이 구조만 기다리다가 모두 죽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건물에 안전을 말아보는 사람이 한명만 있었어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업체가 인건비를 아끼려다가 참사를 빚어냈다고 저주하였다.

그들은 당국자가 국민의 생명이 먼저라고 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하니 사람이고 뭐고 없었다고 하면서 당국의 사고방지대책이 이 정도밖에 안되니 좌절감만 느끼게 된다, 《세월》호참사이후 달라진것이 무엇이냐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21일 서울의 탐골공원에서 집회를 가지고 량심수석방과 《보안법》철폐를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에서는 여전히 량심수가 있고 《보안법》이 살아있으며 로동자가 고통을 받는가 하면 전교조가 법외로조로 취급되는 등 인권유린이 계속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지금도 억류상태나 다름없는 처지에 있는 북의 김련희녀성과 12명 녀성종업원들에 대해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생사조차 모르고있는 현실을 방치해두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량심수가 없는 세상, 《보안법》이 철폐된 세상,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량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고 웨쳤다.

량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남조선단체가 요구

남조선 여러 지역에서 조류독감 발생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련이어 발생하였다.

22일 전라북도 정읍의 한 오리목장에서 발견된 조류독감비루스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조류독감비루스인 H5N6형으로 최종확인되였다.

이에 앞서 19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도 야생조류의 배설물에서 같은 고병원성조류독감비루스가 발견되였다.

올겨울에 들어와 가금목장과 야생조류의 배설물에서 조류독감비루스가 발생한것은 9건에 달한다 한다.

괴뢰공직자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법채택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공수처(공직자부정부패수사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18일부터 서울에서 괴뢰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수사를 위한 법채택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22일 단체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사, 《정부》종합청사앞,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시위자들은 국민의 80%이상이 공수처설치에 찬성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국회》가 관련법안을 론의조차 하지 않은채 사실상 일정을 끌내였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의를 거부함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국회》가 공수처설치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리명박역도의 구속심판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악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

온갖 사회악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그속에서 하루해가 저무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문명》을 떠드는 나라들에서는 끔찍한 반인륜범죄행위들과 말세기적인 생활풍조가 범람하고있다.

미국특유의 사회악-총기류범죄

년초부터 한해가 다 지나가는 오늘까지 자지러진 총소리와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리고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올해 미국의 총기류범죄는 1월 어느 한 비행장에서 20대의 청년이 비행장구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기를 란사하여 5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였다. 2월에는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하루동안에 3건의 총기류범죄가 련이어 발생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여러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미국에서 총기류범죄가 제일 성행한 도시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시카고시에서는 올해에만도 약 640건의 살인범죄가 일어났다. 이 기간 3 42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총기류범죄의 희생물로 되였다.

6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네바다주의 라스 베가스시에서 있은 특대형총기란사사건은 그 처참한 광경으로 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에서는 총기류를 판리통제할데 대한 법제정과 관련하여 또다시 론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전미소총협회의 필사적인 발악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있다.

트럼프도 총기류법안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차차 이야기할것이라고 하면서 총기류통제문제를 수수방관하였다. 지난 4월 대통령으로서 시민들의 무장할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전미소총협회의 활동을 지지한 트럼프가 오늘에 와서 자기의 립장을 바꿀리 만무한것이다.

총기류소유가 법적으로 공인되고 대통령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있는 미국에서 총기류에 의한 폭력 및 살인사건이 해마다 기록을 깨뜨리며 세계 1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미국사회의 총기문화는 그야말로 미국식문명의 상징이다.

난치의 질병-마약범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마약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에서는 전국의 대학생들속에서 거의 40%가 마약을 사용한적이 있으며 그중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매일 마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뭇 견디는 형편이라고 한다.

특히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군에서의 마약사용문제는 더욱 큰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병들이 마약을 람용하다 못해 지난 3월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을 끌어들이다가 덜미를 잡히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26살미만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은 비단 무질서한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날로 성행하는 마약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육체적불구자로 만들어버리고있으며 지어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가고있다.

미국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매일 평균 90명이상이 마약을 람용한 후과로 목숨을 잃고있다고 한다. 카나다의 어느 한 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5월까지의 기간에만도 640명이 사망하였다.

세계적으로 반마약투쟁들이 벌어지고있다고 하지만 마약범죄행위는 근절되지 않고있다. 그것은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자본주의제도하에서 비판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마약중독자로 굴러떨어지고있으며 이것을 리용하여 마약밀수업이 날로 성행하고있기때문이다.

썩고 병든 사회가 낳은 패륜아

도이췰란드에서 한 남성간호원이 여러 병원에서 일하는 과정에 환자들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80여명을 살해한 사실이 판명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약물주입으로 환자를 살해한것으로 하여 2015년에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복역중인 살인자는 지난 시기 병원에서 일하면서 약의 작용으로 심장기능이 약화된 환자를 소생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끌려고 그런짓을 하였다고 한다.

금전관계를 따지며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나 자기의 인기를 끌기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희롱하고있는 간호원이나 모두가 자본주의사회가 낳은 패륜아, 인간백정들이다.

인간이 정신도덕적으로 파멸되여가고있는 현실은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이고있다.

정 원 준

평화파괴자들의 죄악은 가리울수 없다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전쟁의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조선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불길속에 잠기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하지만 지금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극도로 교조되고있다. 그 어느때보다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는 분분초초 폭발국면에로 치닫고있다. 파연 누구때문인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뛴 미국과 괴뢰들때문이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불장난소동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올해의 날과 달들은 미국과 괴뢰들이 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발자, 전쟁광신자들이라는것을 날날이 교발해주고있다.

올해에 현 괴뢰집권세력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은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짙게 몰아왔다.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흉악한 기도이다. 《최대의 알박파 관어》라는 대조선정책을 내든 트럼프행정부는 《핵폐기》의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도발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엄중한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유엔에서 극악무도한 《제재결의》들을 꾸며내는 한편 그 무슨 《군사적선택》안에 대해 공공연히 줴쳐대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늙다리깡패 트럼프는 구린내나는 아가리로 《화염과 분노》니, 《완전파괴》와 《절멸》이니 하는 전쟁폭언들을 마구 내뱀으면서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일대에 련이어 전개하고 핵전략폭격기를 남조선상공에 뻔질나게 들이밀면서 극도의 전쟁광기를 부리였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이 극도에 달한 엄중한 사태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강위력한 자위적핵억제력이 있었기때문이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억제하는 최강의 무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광증에 혈속까지 물젖어있는 괴뢰들은 미국과 함께 《핵, 미싸일위협》의 쌍괴리를 불어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상전의 핵전쟁책동에 적극 편승해나섰다.

한때 남조선집권자는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력사적책무》라느니, 《평화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가겠다.》느니 하고 외워댔다. 《평화》라는 단어가 《신베를린선언》이라는데서는 거의 50번, 유엔총회연설이라는데서는 30번이상이나 울려나왔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저들의 군사적대결망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책이였다. 괴뢰들은 《전쟁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에 적극 합세해나섰다.

괴뢰들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기본고리로 삼고 미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놓았다. 올해에 있은 미국과 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은 그 목적과 도발적성격, 규모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이 악랄한것이였다.

괴뢰들은 지난 8월 미국과 함께 악명높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내외호전광들은 웅근 하나의 침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투입한 가운데 선제공격각본인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우리의 중요시설들에 대한 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훈련들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트럼프와 미군부의 전쟁광들이 그 무슨 《선제타격》과 《예방전쟁》따위를 부르짖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였다.

지난 11월 미국과 괴뢰들이 조선동해에서 강행한 련합해상훈련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시기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수시로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군사적위협을 가하고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였다. 하지만 지난 11월에는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수역에 한꺼번에 투입하고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상한 극히 도발적인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사태이다. 특히 이 전쟁연습에 투입된 미핵항공모함들과 핵잠수함들에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특수전부대이 승선해있었다.

괴뢰들은 련합해상훈련에 이어 12월에는 미국과 함께 사상 최대규모의 위험천만한 련합공중훈련을 감행하였다.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시시각각 폭발계선으로 치닫았다. 괴뢰들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뿐만이 아니라 《충무》, 《화랑》, 《호국》 등 저들 단독의 각종 불장난소동들을 그칠새없이 감행하면서 온 한해 동족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의 화약내를 짙게 풍기였다.

한편 남조선괴뢰들은 인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여 미국상전의 배를 불리여주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무장장비들의 도입과 개발에 기승을 부리였으며 나중에는 천하무도한 《참수작전》에 투입될 《특수임무련단》까지 조작하는 특대형도발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상전에게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순환배치를 확대해줄것을 극구 애걸한것도 핵전쟁위기를 부채질하는 무분별한 망동이였다.

괴뢰들은 말로는 《평화》와 《전쟁반대》를 웨치면서도 실제로는 지난 한해동안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돌격대로 나섰으로써 핵발사단추를 누르고싶어 안달이 난 트럼프패거리들의 핵전쟁방아간에 물을 대주었다.

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군사적도발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림으로써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국면이 조성되였다.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흉계밑에 외세를 등에 업고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뛴 괴뢰호전광들의 죄악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침략자, 도발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괴뢰들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미국과 괴뢰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짓밟으면서 핵화약고우에서 불장난질을 일삼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심 철 영

전 백악관 수석전략보좌관 트럼프를 철부지로 락인

미국의 전 백악관 수석전략보좌관 배논이 최근 잡지 《배니티 페어》와의 회견에서 트럼프를 철부지로 락인하였다.

그는 트럼프의 정치방식이 11살짜리 어린이가 노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자질에 실망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성추문에 휩싸인 전 미국대통령 부쉬를 변태성욕자라고 비난하였다.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수 8억명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있다. 최근 국제적인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8억명에 달하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서방나라에서 해마다 수백만t의 식료품이 랑비되고있다고 한다. 불공평한 현실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7120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분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